

이달의 역사

November 2002

- 1998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평양에서 열림
- 1992 김선호 열사 추모일*
- 1987 김성애 열사 추모일*
- 1984 42개 대학생, 반독재민주화 전국학생연합 결성
- 1980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김대중에 사형선고
- 1945 조선민주당, 평양서 결성. 당수에 조만식
- 1929 광주항일학생운동(학생의날)

- 1996 박문군, 류타원 열사 추모일*
- 1993 한상용 열사 추모일*
- 1990 민중당 창당. 삼일대표위원에 이우재
- 1956 진보당 창당. 위원장에 조봉암

- 1994 김영삼 대통령, 시드니에서 세계화구상 발표
- 1986 김일성 피격사망설 발표됨
- 1954 한미경제협정 조인, 공정한울 180대 1
- 1905 을사조약 체결

- 1995 김영삼 대통령,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지시
- 1989 북경아시아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5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 1979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선출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 1969 미-소, 핵확산방지조약 비준
- 1961 유엔총회, 아프리카주 비핵지대안 가결

- 1999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북한의 자유등급 최하위로 분류
- 1992 임희진 열사 추모일*
- 1985 서울시내 7개대 14명 주한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 1988 국회, 일해재단 1차 청문회, TV생중계

- 1989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 1980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결성제의
- 1972 남북조절위원회 합의 따라 남북한 상호비방방송 24년 만에 전면중지

- 1992 김복동의원 민자당 탈당과정에서 인기부 납치사건 발생
- 1988 국회 광주특위 1차 청문회

18

- 1992 동두천에서 마이클 미군 이병이 윤금이씨 살해
- 1990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주민시위
- 1986 진성일 열사 추모일*
- 1978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1980 정치쇄신위원회, 정치활동규제자 1차 811명 발표
- 1974 동아일보 휴간, 민권회복 카톨릭기도회 보도문제로 기자들 제작거부
- 1971 중앙정보부, 내란음모혐의로 서울대 전 학생회간부 4명 구속
- 1945 조선인민공산당 결성. 위원장에 어운형

- 1998 시민 1만여명, 대학로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위한 2차 궤기대회
- 1997 남북한 항로관제 직통전화개통
- 1969 미국 아폴로 12호 달 착륙



- 1997 대북 경수로 공사비 51억 8천만 달러 확정
- 1991 북한여성대표단,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 도착

25

- 1988 전국언론노조 창립, 초대위원장 권영길. 41개 언론사 노조참여.
- 1988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도시에서 전두환 구속요구 시위
- 1979 계엄사, YWCA 위장결혼식 사건 발표*

1988 이문철 열사 추모일*
 1981 안기부, 학원침투 재미재일 동포 간첩망 3개파 9명 검거 발표
 1979 계엄사, 박대통령 시해사건 전모발표

1997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선언
 1991 미야자와 일 총리, 국회연설에서 정신대 문제 사죄와 반성 표명
 1991 양용찬 열사 추모일*
 1917 러시아 10월혁명 발발



1999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보법철폐서명 1,064명 명단 발표
 1990 서울지법 남부지원, 보안사가 강요한 1980년 언론통폐합 무효판결
 1985 국군보안사령부, 5개 간첩망 16명 검거발표

1974 김종필 총리 방일, 대나카 일 본총리와 회담, 김대중 사건 유감표명
 1972 남북조절위 평양서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 개최

1970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노동조선 개선요구 분신자살*



1984 민정당사 점거농성*
 1980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언론통폐합 및 새로운 통신사 설립결의

1989 브라질, 60년 이래 첫 국민직선 대통령 선출
 1988 배중순 열사 추모일*
 1984 1차 남북경제회담 열림*
 1974 주한 유엔군사령부, 휴전선 남방 1km지점에서 땅굴 발견발표

1995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
 1989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1983 황정하 열사 추모일*
 1933 미국과 소련 국교수립

1985 제5차 남북한경제회담 판문점서 개최
 1985 제한의회사건*
 1976 대한상의, 우리 노동자 평균임금이 선진국 10%수준임 밝힘
 1959 세계아동인권선언

1997 한나라당 출범
 1997 IMF 구제금융 공식요청
 1985 서울대에서 독재종식과 5공 헌법철폐 위한 범국민토론회 열림
 1972 유신헌법안 국민투표 실시, 투표율91.9%, 찬성91.5%
 1968 시,도민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1981 이재문 열사 추모일*
 1972 남북적십자사, 서울에서 제4차분회담 개최
 1967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군 촉구 결의안 242호 채택

1999 민주노총, 창립4년만에 신고필증 교부반야 합법화
 1988 전두환 전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설악산 백담사 은둔
 1977 리영희 교수, <8억인과의 대화> 내용 일부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1997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구 국제금융지원 참여결정
 1921 최초 신문잡지기자모임 무명회 발족

1995 이덕인 열사 추모일
 1991 새만금 간척종합사업 기공
 1956 한미, 우호통상조약 및 항해조약 조인

1995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0 각종 국제경기 단일팀구성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9 한-소 영사관계 수립합의
 1988 교과서에 실린 5공업적과 전두환대통령 사진 삭제
 1987 대한항공기 폭발
 1986 서울개헌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산발가두시위로 2200명 연행
 1973 기자회견, 사실보다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

1993 한-일-대만, 3개국 농협중앙회장, 쌀시장 개방불가 공동성명 채택
 1984 정치활동 피규제자 99명중 84명 해제(3차 해금)
 1984 박종만 열사 추모일*
 1980 동아, 동양, 서해, 전일방송 언론통폐합조치로 종방
 1972 남북조절위 제3차공동위원장회의 개최(서울)

이달의 역사 - 11월

- 김성애 열사: 작업장내의 인체 유해 화학약품에 의식있고 기절하여 뇌진탕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치료받던 중, 회사측의 은혜 및 협박 요구 등 고통으로 87년 11월 3일 병원 7층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염원하던 투신자살. 당시 18세.
- 김신호 열사: 92년 11월 3일 부산시 사하구 장림지역 대대적 강제철거시 주거권쟁취를 외치며 철거에 맞서다 철거장패의 집단구타로 운명.
- 임희진 열사: 89년 전교조 분회결성을 주도하다 해임. 해직 후에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던 중, 91년 압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92년 "전교조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32세로 운명.
- 진성일 열사: 1986년 애학투련의 건대 농성투쟁에서 '황소진입작전'이라는 살인적 테러로 학생들을 진압하고 관계언론에서는 공산혁명분자의 난동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속에서 침묵뿔인 산업대 학우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86년 11월 5일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와 "산대 학우에게"라는 유서를 뿌리고 분신, 투신. 당시 22세.
- 이문철 열사 추모일: 부당해고와 연장근로 수당미지급에 항의하며 사장면담을 요구하던 중 부당한 해고조치에 격분하여 신나를 온몸에 붓고 분신. 88년 11월 6일 34세로 운명.
- 양용찬 열사: '서귀포지역 문제대체위'에 참가하여 UR과 제주도 개발특별법,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지역감골문제 등에 적극적 활동하던 중 91년 11월 7일 '세계의 관광지 제2의 히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 제주도'를 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특별법 저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 당시 25세.
- 최용현 열사: 총학생회 반미소위원장,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 단식투쟁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1990년 11월 8일 한양대 교내건물 옥상에서 민주화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운명. 당시 23세.
- 전학련 소속 서울시대 14개 대학생 196명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기습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군사독재정권퇴진", "외체도입 중지", "노동운동단입 중지", "실업자구체보장" 등 20개 요구사항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테러진압대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을 연행하고 191명 전원을 구속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점거투쟁을 진복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하였다.
- 한상용 열사: 초등교육개혁과 고대교육정상화를 위한 4학년 대책위원회 위장 활동하였으며 임용고시 반대투쟁 승리를 위한 계속적 투쟁을 벌이다 1993년 11월 10일 10시경에 분신하여 전신3도 화상과 내출혈로 전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운명하였다.
- 박문곤, 류타원 열사: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1996년 11월 10일 전국교사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전복사고로 운명. 같은 사고로 류타원 어린이가 함께 운명. 박문곤 열사 당시 33세, 류타원 당시 11세.
- 전태일: 13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중구 청계천 6가 피복 제조상인 동화시장 종업원이었던 전태일이 작업장 안의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온몸에 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 메디칼 센터를 거쳐 성모병원에 옮겼으나 이날 밤 10시께 숨졌다.
전태일은 지난 10월 7일, 청계천 5~6가 동화시장, 평화시장, 통일상가 등 4백여 피복제조상의 작업장 시설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냈으나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시정도 없이 이날 낮 1시 20분, 3개 시장 계단사 친목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시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 했다. 전태일 등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미리 출동한 경



- 황정하 열사: 83년 전두환 정권의 학원단입이 그 도를 더해갈 무렵, 11월 11일 미 대통령 레이건의 방한예정에 반대하여 '전두환 정권퇴진, 레이건 방한저지'를 위해 서울대 시위를 주도하여 11월 8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주화투쟁'을 주도하고자 도서를 6층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5층 베란다로 내려오려던 중 열람실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과 수위들이 달려들었고 이에 추락, 뇌출혈상을 입고 16일 운명.
- 이재문: 4·19 당시 민족일보의 기자로 분단과 반공에 맞서 언론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때 통일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고, 그후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표되면서 감기를 피해 고난의 수배생활에 들어섰다. 79년 10월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된 후 80년 광주학살에 항의, 무기한 단식투쟁 중 지병인 신경성 위궤련 증세가 악화되어 긴급 조치가 요구되었으나, 비전향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당국에 의해 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
- 79년 10. 26일 유신독재정권이 종식되면서 민주화의 길이 열리리라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었다. 10. 27일 대통령 대행에 최규하 당시 총리가 임명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되면서 여전히 민주화의 일정은 지연되었고 국민들의 행동은 제약받고 있었다. 11. 10일 최규하 대통령 대행은 유신헌법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후 민의를 모자 개헌을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유신을 청산하고자 했던 반유신세력들에게 '신 통대 대통령 선출 후 개헌'은 유신독재로의 퇴행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즉각적인 재야세력들의 분노와 반발을 야기했다. 각계에서 유신철폐와 계엄령 해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학교의 시위가 이어졌다. 유신으로의 후퇴이나 민주회복으로의 전진이나를 평가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판단한 재야세력들은 통대선출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혼식을 위장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박종만: (주)민경교통 노동자들은 1984년 11월, 노동조합 일로 자주 승무를 못한 사무장을 무단결근 등의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하고 시킨 회사 측에 분노하며 11월 27일 해고 음모철폐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결의하였다. 11월 30일 노동자들은 통대선출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단결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3인을 해고하겠다"고 위협을 당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박종만 동지는 동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며 "노동조합 탄압하라, 사무장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오후 8시 30분 경숨을 거두었다. 당시 36세.